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⑨

3월의 정원, 가지치기와 모양 다듬기

설리춘색(雪裏春色)이라고 꽃이 피고도 눈이 오는 시기가 3월이다. 이 때는 봄이 왔나 싶어도 겨울 기운을 나타내므로 정원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역과 식물의 특성에 따라 점검 사항들을 정리하고, 전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본다.



3월의 정원, 먼저 해야 할 일

- 장미, 배롱나무, 모과나무 등 방한을 위해 싸 준 방풍막을 걷어낸다.
- 잠복소도 풀어 태우고 벌레집과 목피를 대나무 빗자루나 굵개로 긁어낸다.
- 겨울동안 죽은 가지, 찢겨진 가지를 비롯해 과실수를 포함한 낙엽수의 가지 치기를 마무리한다.
- 작은 하우스로 파종하여 모종 이식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
- 이식과 보식을 한다.
- 정원에 목재나 철재 부분은 칠을 해야 오래 간다. 6개월에서 1년, 최소 2년에 한번씩은 칠한다.
- 해동과 더불어 안전과 보수 점검을 보완한다.
- 포도나무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관수를 한다.
- 화단의 흙을 뒤집고 밀거름을 준다.
- 그라스류와 지남해 지고 난 다년생 초화류는 땅 위에서 5~7cm 정도 남기고 마른 잎들과 줄기를 잘라 정돈한다. 너무 일찍 잘라도 냉해를 입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새로 나오는 순이 다치게 된다.

수형을 잡아주는 가지치기 방법



가지치기는 왜 해야 할까?

울타리용, 녹음용, 차폐용, 관상수, 과실수, 방풍, 방음 등 나무를 심은 목적에 맞춰 가지치기를 할 때다. 잎이 없어 가지가 잘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수형을 잡기 좋고,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가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잎이 나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면, 굵은 가지를 잘라도 나무에 영향을 덜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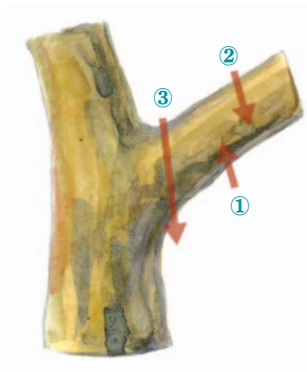
- 아름다운 꽃과 잎, 열매의 색깔(한 해 열리고 다음해 열리지 않는 것) 방지를 위해서,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가지를 친다.
- 수형을 잡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지를 친다.
- 수세와 성장목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순과 가지를 친다.
- 죽은 가지, 꺾인 가지, 태풍이나 폭설에 손상된 가지도 제거한다.
- 과일나무의 경우 수확과 작업의 편리를 위해 가지를 치고 방향을 유도한다.

안쪽 눈은 위나 안으로 뻗는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깥 눈에서 0.5~1cm 위에 위치를 잡고 전정가위로 가지와 수직이 되도록 잘라낸다.



어떤 부분을 가지치기할까?

- 웃지란 가지와 안으로 향한 가지(통풍과 수형에 방해가 됨)
- 죽은 가지, 병충해 입은 가지
- 아래로 향한 가지
- 원 줄기에 난 움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움
- 굵은 가지와 교차하는 가지
- 같은 장소에서 평행하게 난 가지
- 복잡하고 많은 가지(통풍, 채광을 위해)



TIP 두꺼운 가지치는 방법

가지치기에는 전정가위, 식목가위, 고지가위, 톱, 사다리, 끈 등의 도구가 필요하다.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① 위치에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절반 ② 위치에서 아래방향으로 잘라 가볍게 한 후 ③ 위치에서 짧게 잘라 마무리한다.

가지치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낙엽수 | 1년 중 12월~3월, 7월~8월, 이렇게 두 번쯤 적당한 시기가 있다. 자연수형의 경우는 놔두어도 무방하지만 가정의 한정된 마당에서 크는 나무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싹이 빨리 나오는 단풍나무류는 전지를 서둘러야 한다. 배나무는 단풍보다 늦어도 되므로 마당에 있는 나무의 특징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나무는 꽃이 진 후 꽃자루를 잘라주면 나무의 생육이 더욱 좋아진다. 꽃이 진 후 7월~8월경 새 가지에서 나온 꽃눈이 분화하여 겨울을 나고 이듬해 꽃을 피운다. 철쭉, 개나리, 목련, 등나무, 때죽나무, 매실나무 등은 꽃눈이 분화하기 전 6월 이전에 전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수국, 모란 등은 꽃을 보고 난 후에 꽃대의 두세 마디 아래를 전정해야 이

듬해 그 가지에서 꽃을 본다. 배롱나무, 장미, 무궁화는 어디를 잘라도 새 가지에서 그 해 꽃이 핀다. 자연수형으로 자라는 천성의 나무들은 전정 후 잘린 부분에 유성페인트를 발라, 물이 침투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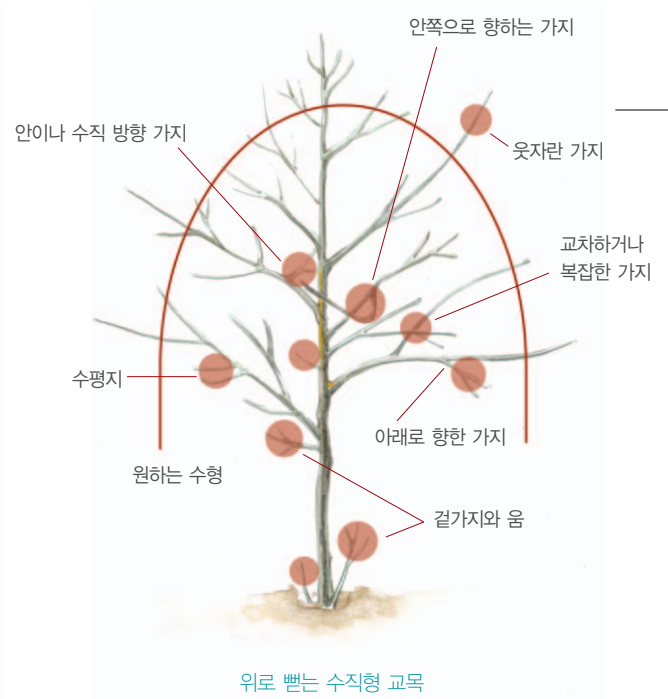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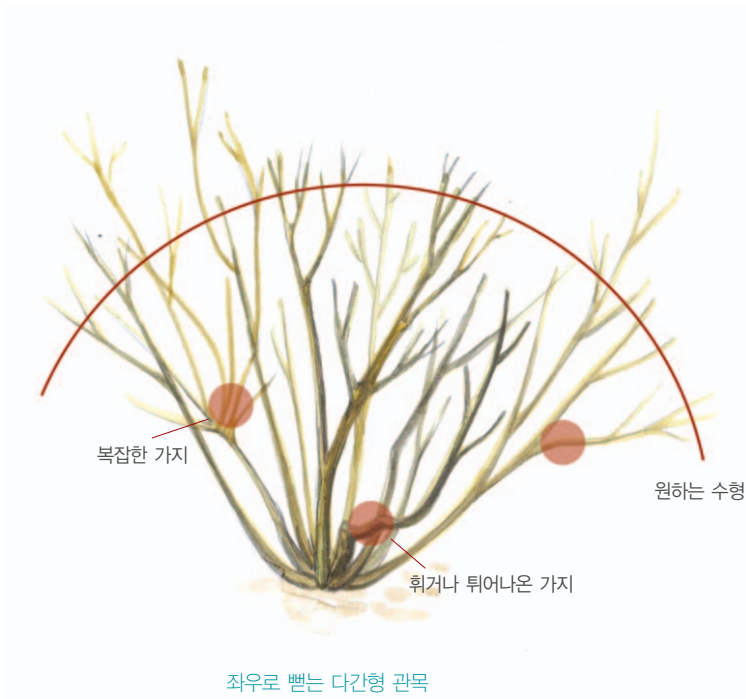
바늘잎 침엽수 | 가지치기는 이른 봄이나 10월~11월이 적당하다. 이른 봄이 좋은 이유는 4월 이후 바로 성장기로 들어서면서 가지치기한 부분이 자연스러워지고 동해나 햇빛에 타는 피해가 없다. 특히 나한백, 가문비, 향나무, 편백, 금송, 주목 등은 햇빛이 안 드는 속가지가 마르기 쉽다. 그 부분도 전정할 때 제거해야 한다.

키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마디 바로 위를 자른다.

소나무 전정하기 | 소나무의 성장 조절을 위해서는 송화가루가 날리는 5~6월에 순자르기(눈따기)를 한다. 1/2~1/3까지 손으로 잘라내고 따 낸다. 소나무는 분재처럼 가지와 모양을 오랜 시간 다듬기도 한다. 원가지를 중심으로 모양을 다듬고 촘촘한 가지는 연결 부위에서 잘라내고 뾰족한 안쪽 잎과 마른 잎, 가지는 제거한다. 하나의 마디에서 뭉쳐서 나오는 가지는 2~3개 잔가지만 남기고 솎는다. 소나무는 연 1회 성장형으로 5~6월에 최고로 자란다. 7월에 한 번 더 길게 자란 가지와 잎을 정리하면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 11월~2월은 가지 끝의 잎을 5~6쌍만 남기고 솎아낸다.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만 겨울에 눈의 무게에 가지가 찢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이즈항나무 측백형 | 튀어나오게 자란 부분은 안쪽으로 가위를 넣어 몇 마디 안으로 자르거나 손으로 뜯어 밖에서 절단면이 보이지 않게 한다. 주목이나 토이를 만드는 나무의 굵은 가지는 자르고자 하는 부위보다 몇 마디 안으로 잘라 단면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굵은 가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양손 가위로 자른다.

상목수 | 5-6월, 9~10월 연2회 전정이 가능하고 잘라도 순이 다시 잘 돋는 나무는 연3회로 7-8월에 한 차례 더 해도 무방하다. 사철나무, 회양목, 팽팡나무, 홍가시 등 남부나 제주수종이 많다. 생울타리, 산울타리 개념의 흔히 울타리용 나무들은 5-6월, 9월이 적기다. 전지 후 동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조팝나무, 노각나무, 개나리, 납매, 산당화, 황매화, 라일락, 수국, 고팡나무, 꽃댕강나무, 남천, 빨남천, 말채나무 등은 다간형(여러 가지로 반원형으로 자라는 형태) 관목류로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지면부에서부터 복잡한 줄기를 솜아 제거한다. 흰 가지와 묵은 가지, 복잡한 가지 순서로 자르면 꽃도 많아지며 아름답다. 덩수룩한 잎을 줄이고 아래에 난 잔 가지도 줄인다. 지면부에서 조금만 남기고 다 잘라 새 줄기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튜디오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이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